



1ST SERVICE: 8:00 AM
2ND SERVICE: 11:30 AM

PRESIDER: REV. PARK, SE KWANG

† CALL TO WORSHIP

† HYMN 10

† RESPONSIVE READING NO. 19(Psalm 32)

† CONFESSION OF FAITH THE APOSTLES' CREED

HYMN 292

REPRESENTATIVE PRAYER
1ST - ELDER. YOO, BYUNG GUN
2ND - ELDER. MOON, SANG WON

SCRIPTURE READING 1 Cor. 2:1-13

CHOIR

SERMON **IS IT THE WISDOM OF PEOPLE?
IS IT THE WISDOM OF G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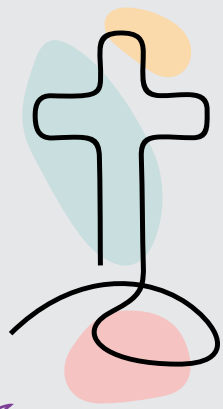
ANNOUNCEMENTS

OFFERING AND PRAYER

† HYMN 447

† BENEDICTION

FELLOWSHIP



66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 1:2)

Beloved,
I pray that all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be
in good health,
as it goes well with your soul.
(3John 1:2, ESV)



서밋 장로교회
SUMMIT PRESBYTERIAN CHURCH
242 E. MIDLAND AVE. PARAMUS, NJ 07652
TEL. 201.944.0554
WWW.SPCNJ.COM

담임목사: 박세광
REV. PARK, SE KWANG

원로목사: 김철연
REV. KIM, CHURL YEON

1부: 8시 / 2부: 11시 30분

인도자: 박세광 목사

| | | |
|---------|------------|-----|
| † 목 도 | | 다같이 |
| † 기 원 | | 인도자 |
| † 찬 송 | 10장 | 다같이 |
| † 교 독 문 | 19번(시편32편) | 다같이 |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다같이]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이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 | | |
|--------|--------------------------|-----|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
| 찬 송 | 292장 | 다같이 |
| 대표기도 | 1부: 유병근 장로 2부: 문상원 장로 | |
| 성경봉독 | 고전 2:1-13 | 다같이 |
| 찬 양 | | 찬양대 |

설 교 **사람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박세광 목사

| | | |
|--------|------|-----|
| 광 고 | | 인도자 |
| 헌금기도 | | 설교자 |
| † 찬 송 | 447장 | 다같이 |
| † 축 도 | | 설교자 |
| 성도의 교제 | | 다같이 |

예배안내

- (1) 우리교회에 방문하신 분들과 새로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2) 우리교회는 예배 입장시 헌금을 미리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안내: Venmo @edenpchurch
- (3) 졸업예배: 28일

알림

1. 교회 행사

- (1) 서밋 한마음 피크닉이 은혜중에 마쳤습니다.
- (2) 렌넛트 여름 캠프: 7월 6일~8월 14일
* 교사를 찾습니다.
* 서밋캠프 설명회 및 기도모임: 오늘, 오후 2시
- (3) 서밋한국학교 종강: 6월 13일 (토)
- (4) 중보기도팀 모임: 다음 주일(7일), 오후2시

2. 교회 훈련 및 지역모임

- (1) 40일 집중 팀매칭 신청서를 받습니다 (31일까지)
- (2) 중직자대학원 제5강: 6월 3일(수)
- (3) 화요제자훈련, 전도캠프 -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알림

- (4) 성경통독 소그룹 모임: 오후 2:30, 시편 #4
- 수요 오전10시: 리더 훈련 및 성경통독 미리맛보기 (youtube, 잠언)
- (5) 미션홈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 대청부 (오늘, 오후 7시, 조채윤 램넛트)
- 사역자 (월, 오후7:30, 김병주 집사)
- 사역자 (토, 오전 10시, 본당)
- (6) 토요산업선교: 토, 오전 8시, iPrime Academy
- (7) 토요핵심: 토, 오전 11시, 본당
- (8) 아메리카개혁총회 정기총회: 1일(월), 오전10시-오후3시. Zoom.
- (9) 미주 대학전도집회: 6월 16-17일(시카고성국장로교회)

3. 친교와 봉사

- (1) 이번주 친교: 김지선/김성진
다음주 친교: 박학수 권윤희
- (2) 친교 (설겅이 및 부엌 뒷정리)
- 이번 주일: 유스그룹 및 유초등부
- 다음 주일: 바울선교회

4. 교인동정

- ▷ 담당교역자: 문에디 전도사 MOON, EDDIE ASSISTANT PASTOR(TEL. 973-943-3304)
- ▷ 담당중직자: 박용식 안수집사 PARK, YONG SIK ORDAINED DEACON(TEL. 201-403-8113)

| | 06/07 | | 06/14 | | 06/21 | | 06/27 | |
|----|-------|-----------|-------|-----------|-------|-----------|-------|-----------|
| | 기도 | 안내 | 기도 | 안내 | 기도 | 안내 | 기도 | 안내 |
| 1부 | 문상원 | 원복선 | 여흥구 | 원복선 | 문상원 | 원복선 | 이원형 | 원복선 |
| 2부 | 유병근 | 프란체스코/김정진 | 이원형 | 프란체스코/김정진 | 유병근 | 프란체스코/김정진 | 여흥구 | 프란체스코/김정진 |

04-A 하나님께 드린 예물 OFFERING

| | |
|-------------------------------|--|
| 주일헌금 SUNDAY OFFERING | 구현민/구하민 김성훈/이지원 김은정 김제시카 박경희 박세광/김진실 박정빈 염나실 유병근 이규상/박선애 이원형/정소은 정남득 조채운 |
| 십일조 TITHE | 김병주/신지영 김학균/홍서연 박용식/박소라 박해민 선우유니스 안주현 유병근 이원형/정소은 이청학/박숙진 최정애 황기자 무명(1) Esther Yi |
| 감사헌금 THANKSGIVING OFFERING | 김근필/김남옥 김효순 박소연 박학수/권윤희 신현희 심유진 여인호 유병근 이규상/박선애 무명(1) David/Clare Lee |
| 건축헌금 CONSTRUCTION OFFERING | 김제시카 원복선 정남득 |
| 선교헌금 MISSIONS OFFERING | 김제시카 문상원 박용식/박소라 정남득 |
| 특별헌금 SPECIAL OFFERING | [한국학교] 박세광/김진실 박용식/박소라 유병근 황기자 이크리스틴 [초등부헌신예배] 담임목사 외 43명 |

04-B 장년 주중 훈련 및 모임 안내 INFORMATION ON WEEKDAY TRAINING AND MEETINGS FOR ADULTS

ZOOM ID: 237 237 1004; PW: summit

| 요일/시간 | 화 (10:00A.M.) | 수 (10:00A.M.) | 수 (7:00P.M.) | 수 (8:00P.M.) | 토 (11:00A.M.) |
|-------|---------------|---------------|--------------|--------------|---------------|
| 훈련 | 전도제자훈련 | 성경통독 | 다민족메시지포럼 | 중직자대학원 | 핵심훈련 |
| 장소 | ZOOM | 웹넛트실/ZOOM | 웹넛트실 | 본당 | 본당 |

04-C 산업선교 모임 안내 INFORMATION ON BUSINESS MISSION MEETINGS

- ▷ 뉴저지 산업선교회 / 토요일 8:00 AM / iPrime Academy
- ▷ 뉴욕 뉴저지 영 산업선교회 / 토요일 8:00 AM / ZOOM

04-D 미주 지역 전도학교 안내 INFORMATION ON EVANGELISM SCHOOL OF NORTH

- ▷ NY-NJ-PA 초등부 서밋전도학교 / 매달 둘째 월요일 8:00 P.M. / ZOOM
- ▷ 뉴욕 뉴저지 영 산업선교회 / 토요일 8:00 P.M. / ZOOM
- ▷ 미주 대학 전도학교 / 매주 주일 8:00 P.M. / ZOOM

31일(주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선생이 되시며 선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현장과 업의 흐름, 그리고, 나라의 흐름을 찾아내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영혼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시작이 되는 예배가 일어나게 하소서.

01일(월) [말씀의 흐름의 회복을 위하여]

서밋의 모든 교우들이 말씀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와 현장의 모든 것을 말씀 중심으로 새롭게 보는 눈을 열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몸과 삶을 다스리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특히 40일의 집중을 시작하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있음을 알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02일(화) [기도의 흐름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맘대로 삼고 그 안에서 회복하는 기도가 모든 서밋의 교우들에게 일어나게 하소서. 나 자신을 분석하고 현장을 분석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현장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여정으로 분석하며 기도하며 응답을 얻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 진행되는 전도캠프에 역사하여 주소서. 현장을 살펴보고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정탐꾼과 전도특공대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 주소서.

03일(수) [전도의 흐름의 회복을 위하여]

진정한 성령의 인도 받는 전도가 회복되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가 아닌, 나 자신의 구원받는 자를 찾고자 하는 소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전도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성경통독모임이 말씀의 깊은 흐름속에 들어가는 훈련이 되게 하소서.

04일(목) [현장과 업의 흐름의 회복을 위하여]

능력이 없어 눌러 있는 현장, 능력이 있지만 네피림과 현장의 흐름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현장이 되도록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현장의 네피림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소서. 현장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만들게 하소서. 흑암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내는 시스템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 일을 위해서 업을 사용하여 주소서.

05일(금) [나라의 흐름의 회복을 위하여]

미국이 복음을 잃어버린 강대국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께서 오늘도 이 나라의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미국에 모인 237 나라, 5000 종족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흐름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소서. 특히 우리 교우들이 각각 살릴 수 있는 나라와 그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살리는 비전이 발견되게 하소서.

06일(토) [서밋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 신뢰함으로 든든한 믿음의 방패가 되어 삶의 힘든 부분을 함께 극복하게 도와 주소서. 가정이 복음, 기도, 전도가 흐르는 복된 장막이 되어,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깊은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손들에게 참된 구원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소서.



QR코드로 방문하시면,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도를 따라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고전 2:1-13)

(서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많은 영적 불모지인 미국 현장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고후 10:5).

1. 사람의 지혜 vs.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 (1) 사람의 지혜는 아름다운 말들이 많습니다 (1).
- (2) 사람의 지혜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4).
- (3) 사람의 지혜는 이 세상의 통지자들의 지혜이지만, 곧 없어집니다 (6).
- (4)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납니다.
- (5) 하나님의 지혜는 능력이 있습니다 (5).
- (6)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7).
- (7)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7). 이것을 찾아내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2. 기도 흐름 속에서 지혜, 생명과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요 7:38).

- (1) 기도의 흐름이 내게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 (2) 말씀의 흐름이 보여야 지혜가 생깁니다.
- (3) 전도의 흐름이 보여야 능력이 생깁니다.
- (4) 현장(업)의 영적흐름이 보여야 전문성이 생깁니다.
- (5) 나라의 영적흐름을 이 흐름속에서 보아야 미래가 보입니다.

3. 오직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 (1)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만 가능케 하십니다 (10).
- (2) 우리는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해야 합니다 (13).

마음에 담긴 말씀 한구절

마음을 담은 기도 한문장

마음을 심은 현장들

IS IT THE WISDOM OF PEOPLE? IS IT THE WISDOM OF GOD? (1 COR. 2:1-13)

(Introduction) Even today, God is living and working in the spiritual wilderness of America, where lofty things have raised themselves against the knowledge of God.

1. Wisdom of people vs. power and wisdom of God

- (1) There are many beautiful words in the wisdom of people (1).
- (2) There is persuasion in the wisdom of people (4).
- (3) The wisdom of people is the wisdom of the world's leaders, but it quickly disappears (6).
- (4) God's wisdom appears through the cross.
- (5) There is power in the wisdom of God (5).
- (6) The wisdom of God is hidden (7).
- (7) The wisdom of God has been predestined for our glory (7). The method to find this is prayer.

2. Wisdom, life and power flow within the flow of prayer (Jn. 7:38)

- (1) The flow of prayer must flow from within me.
- (2) We must see the flow of the word to gain wisdom.
- (3) We must see the flow of evangelism to gain power.
- (4) We must see the spiritual flow of the field(job) to gain expertise.
- (5) We must be able to see the spiritual flow of the nation within this flow to see the future.

3. Only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the working of the Holy Spirit, and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 (1) God makes it possible only through the Holy Spirit (10).
- (2) We must do it through the Holy Spirit's teachings (13).

God's Word kept in the heart

a prayer filled with the heart

a field rooted in the heart

리딩지저스

“READING JESUS”

2026년 서밋가족들은 ‘리딩지저스’ 라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리딩지저스’ 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매일 읽는 성경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 구원과 은혜, 역사를 묵상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통독 프로그램은 ‘오직 예수 (행1:1),’ ‘오직 하나님 나라(행1:3),’ ‘오직 성령’ 으로 복음화(행1:8)를 추구하는 서밋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유익한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리딩지저스 안내영상



성경통독 안내(서밋홈페이지)



05.31 주일 SUN

- 06.01 월 MON | 잠 Prov. 1-5 (3)
- 06.02 화 TUE | 잠 Prov. 6-10 (9)
- 06.03 수 WED | 잠 Prov. 11-15 (13)
- 06.04 목 THU | 잠 Prov. 16-20 (17)
- 06.05 금 FRI | 잠 Prov. 21-25 (25)
- 06.06 토 SAT | 잠 Prov. 26-31 (30)

06.07 주일 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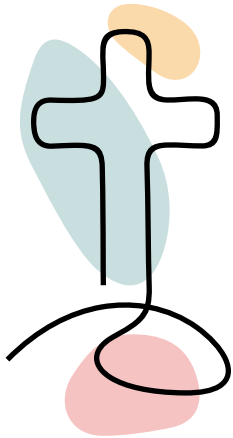
- 06.09 월 MON | 전 Eccles. 1-3 (3)
- 06.09 화 TUE | 전 Eccles. 4-6 (5)
- 06.10 수 WED | 전 Eccles. 7-9 (9)
- 06.11 목 THU | 전 Eccles. 10-12 (12)
- 06.12 금 FRI | 아 Song 1-4 (3)
- 06.13 토 SAT | 아 Song 5-8 (8)

06.14 주일 SUN

- 06.15 월 MON | 사 Isa. 1-5 (5)
- 06.16 화 TUE | 사 Isa. 6-10 (9)
- 06.17 수 WED | 사 Isa. 11-15 (12)
- 06.18 목 THU | 사 Isa. 16-20 (20)
- 06.19 금 FRI | 사 Isa. 21-25 (25)
- 06.20 토 SAT | 사 Isa. 26-30 (26)

06.21 주일 SUN

- 06.22 월 MON | 사 Isa. 31-36 (35)
- 06.23 화 TUE | 사 Isa. 37-42 (40)
- 06.24 수 WED | 사 Isa. 43-48 (43)
- 06.25 목 THU | 사 Isa. 49-54 (53)
- 06.26 금 FRI | 사 Isa. 55-60 (55)
- 06.27 토 SAT | 사 Isa. 61-66 (64)



리딩지저스 성경나눔

SHARING READING JESUS BIBLE READING

- ① 시편은 정교한 ()와 분명한 ()을 위해 다섯 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각의 시편만이 아니라 시편 전체가 하나님의 ()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관점으로 읽어야 함

시편 4에 들어가며

- ② 시편 90편은 시편 전체의 전환점입니다. 빈칸을 채워 보세요.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 부터 ()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하게 하소서”

- ③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름답게 노래하는 시입니다. 시인이 율법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빈칸을 채워 보세요.

- 33절 “여호와여 주의 ()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 88절 “주의 ()을 따라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
시면 주의 입의 ()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 97절 “내가 주의 ()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
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 105절 “주의 ()은 내 발에 ()이요 내 길에 ()이니이다”

4 시편을 통해 노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성경수업 Lesson4

- () 노래자: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
- () 노래자: 우리가 완전히 공유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신 분
- () 노래자: 모든 성도에게 천국의 ()에 참여하라고 촉구하시는 분

정답

1. 구조, 목적, 섭리 2. 영원, 영원, 주의 종, 은총, 견고, 견고 3. 울레, 인자하심, 교훈, 법, 말씀, 등, 빛
4. 우리를 대표하는, 최고의, 다시 오실, 새 노래

나눔질문

- ① 주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을 회복하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요?
- ② <<리딩지저스>>3권을 통하여 시편을 간단히 정리하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과 은혜로웠던 시편을 정리하고 나누어 봅시다.
- ③ 탄식과 신음, 악인을 향한 원망이 담긴 시편도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와 찬양으로 끝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를 품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을 드립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 신앙고백

- 찬송: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 기도

- 성경본문: 고전 1:25

- 주기도문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보다 탁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더니.” 말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기도가 살아서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말과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지혜로운 말인가요? 인생에서 지혜로운 말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불안과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이 말로 위기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지혜의 말은 사람을 평온하게 합니다. 지혜의 말은 사람의 고통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지혜로운 말보다 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지혜의 말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더 못하고.” (고전 1:31). 나의 오늘이 기도 속에 있다가 갑자기 더 지혜로운 말이 나오면 그 지혜의 말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닌가요? 주변 사람들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능력이 없다고 느껴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나는 정말 그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 어느 누구보다 더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를 인도하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충분하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눈이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탁월하다고 여겨지지 않을만큼 나의 눈이 성령의 인도받는 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하나님의 지혜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보는 것입니다. 百聞(백문)이 不如一見(불여일견)이라는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100번 들어도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뜻이죠. 사람의 지혜를 100번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것 하나만 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사람의 두 눈은 순간적으로 수평으로 180-200도, 수직으로 120-135도의 각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는 그것보다 더 넓은 각도 거의 300도의 각도로 사물을 쳐다보지요. 하지만 사람은 이 각도로 단 한 가지 장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봅니다. 현재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흐름이 흘러가는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두 눈을 TV로 비유한다면 한번 볼 때 순간적으로 5억 7,600만 화소를 읽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4K TV 기기를 70대 동시에 펼쳐놓고 보는 것과 같은 정보의 양입니다. 그리고 집중하면 이런 정보를 1초에 220장까지 우리 눈에 입력한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듣는 것보다 말 한마디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답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는 저주 속에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것, 욕심, 쾌락, 분노, 다툼, 문제, 위기는 눈에 보이지만 흑암의 세력,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영적인 저주는 보지 못하는 무능력과 무지함으로 우리 눈이 덮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눈을 주께서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안을 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흐름을 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영안을 열면 기도의, 흐름이 보이고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전도 흐름이 보이며, 내 업에 하나님의 흐름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눈이 뜨이도록 기도합니다.

이 눈이 뜨이면 지혜로운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응답을 보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눈을 뜨도록 기도합니다.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는 “보는 것”입니다. 전도도 “보는 것”입니다.

- 신앙고백
- 찬송: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 기도
- 성경본문: 고전 2:9-10
- 주기도문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 신앙고백
- 찬송: 89장
사론의 꽃 예수
- 기도
- 성경본문: 고전 2:3-5
- 주기도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주시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집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 능력은 나의 유익을 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맛도 볼 수 없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지극히 작은 그릇을 채우는데만 사용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장에서 밥 한 그릇 더 먹는 능력을 증명할 때 사용하기를 원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데 사용하기를 원하고, 나의 실패를 만회하는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혼의 온전하게 임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온전하게 담기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메말라 있고 무능력하며 방황하는 삶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원적인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이 근원적인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근원적인 능력은 지혜의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창조와 빛, 하나님은 생명의 빛”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말씀이 내 영혼에 담기면 근원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혜를 초월합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시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자는 지혜를 멸시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외함은 겸손하다는 것이죠.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가 완전히 이해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할 때 내 능력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도록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마28:18-20). 이 능력이 내 기도 속에서 흘러 나와야 하겠습니까. 이 능력이 내 말씀 묵상 속에서 흘러 나와야 하겠습니까. 이 능력이 말씀의 묵상 속에서 흘러 나와야 하겠습니까.

요셉은 바로 앞에서 앞으로 올 대기근에 대해 경제학과 환경과학, 그리고 정치 외교학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에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창 41:16).

나오미는 가난한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고자 지혜를 쓴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 약속으로 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오늘의 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입니다. 지혜가 증명이 아닙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시대는 해독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수많은 화학 물질들과 문제들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해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독에 중독되어 수많은 질병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물질만 독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독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행동에도 독이 있습니다. 눈빛 하나에도 독이 가득한 눈빛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현대 시대의 기술은 독을 적당량 사용하여 치유에 유용하게 사용할만큼 발전되었습니다. 현대의약품에 많은 성분이 독의 독성을 약화시켜 우리 몸의 특정 부분만 자극을 주어 치료하도록 만듭니다. 폐니실린은 치명적인 독이지만 적당히 약화시키면 이 때까지 고치지 못했던 바이러스와 전염병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독입니다. 우리의 몸에 이 독을 치유하려는 자가면역과 자가 치유의 능력이 없으면 그 약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하여 현대의학은 약을 주더라도 체력이 받쳐주도록 독려합니다.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따끔하게 훈계할 때 자녀가 그 훈계의 뜻을 이해하고 자신을 고치는 능력이 없으면 그 훈계는 그 자녀에게 독이 됩니다.

지치고 피곤한 마음과 영혼을 달래기 위해 쉼, 오락, 금융, 치유를 우리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 상태가 근원적으로 죽어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지 못합니다. 정신은 힘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쉼, 오락, 금융, 치유가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심지어 예배드리는 것이 힘이 들어 잠시 쉬었다가 아직까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지쳐 있는 영적 무능력이 우리 현실에 많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것으로 나를 위로하는 그 독에 중독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렘넌트들이 마음을 달래 줄 뜻으로 게임 온라인 미디어 등으로 여가 시간을 즐깁니다. 하지만 영적인 힘 근본적인 힘이 없으면 그것은 렘넌트들을 중독되게 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혹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오직 도피만을 위해서 여러가지 중독으로 도망치지 않는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뱀을 잡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약속은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독특하고 유일한 권세입니다. 오늘이 권세를 회복하도록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상처 주는 말에 중독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에 중독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 신앙고백
- 찬송: 309장
- 기도
- 성경본문: 막 16:18
- 주기도문

목마른 내 영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 신앙고백

-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 기도

- 성경본문: 시 42:9-11

- 주기도문

“우울에 노출된 우리를 치유하자”

우울증은 현대 시대에 많이 발견되는 흔한 정신적인 증상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과 뉴저지는 높은 주거비와 물가로 인해 끊임 없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위협으로 누적된 피로감이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우울은 불안과 근심 낙심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최근 흥미로운 한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은 어려운 직장 생활과 급변하는 사회생활에 노출되어 있는 성인들에게만 국한되어 나타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유아들에게까지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정신병과 함께 우리 뇌에서 발생하는 육체적 질병으로 보고 치료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심하면 고립감 그리고 자녀 양육 문제에서 생기는 갈등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됩니다. 약으로 치유될 수 있을까요? 한인들은 되도록이면 정신적인 약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만 세대들은 약을 먹더라도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찾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에게 근원적인 정신적 힘이 생기지 않으면 더 우울 해 집니다.

역대상 19장 1절에서 14절에 엘리야 선지자도 심각한 우울증상을 겪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멀리 광야로 도망함으로 자신을 사람들과 격리시켰고 로렘나무 밑에서 죽기를 자청할 정도로 절망했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이 아주 부족하다는 열등감에 시달렸고 먹을 것조차 없어 탈진 상태에 빠졌습니다. 먹는 것이 힘들었겠지요. 엘리야와 같은 우울증상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이는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단절을 느낍니다. 죄를 짓고 죄책감에 시달리던지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든지 찬양과 예배와 말씀이 다가오지 못하는 등 우울감과 연결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사단이 주인이 되어 경제 문제, 가정 문제, 현실의 스트레스 등으로 더 시달리게 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지만 우울증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최고의 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최고의 길입니다. 나를 달래지 마시고 나의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구원할 분이 없음을 고백 하십시오. 오늘 시편 42편 9절 말씀처럼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라고 질문할 때 그때서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회복하시는 성령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죽을만큼 힘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놀려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 영적 상태에 내 마음에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기가 내 마음에 흐르도록 간구하십시오. 11절 말씀처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전도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고 도우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 시대의 네편림과 같은 질병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복음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지가 전달되게 하십시오.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리시는 생기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짝 뜨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을 담은 기구 제작법을 알려주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왜냐하면),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라” (29).

나는 오늘 내가 하는 기도의 흐름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가 내 영혼, 마음, 몸, 삶, 일에 흐르게 합니까? 아니면, 나의 걱정, 나의 근심, 나의 분노, 나의 조금함이 그 기도제목에 흐르게 하거나 내 몸에 이런 염려가 흐르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와 멀어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 삶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숨이 끊어지면 멈춰버린 심장과 장기를 더 이상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서 끊어진 것이지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근심과 걱정속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의 호흡은 마치 심장마비 증상이 온 사람처럼 엄청나게 짧아집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한참을 달려온 사람처럼 숨이 가팔라져 과호흡에 이르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되는 모든 곳은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가 너무나 만연한 자들입니다. 조금만 죄에 오염되면, 걱정과 근심에 오염되면, 재빨리 온 몸에 퍼져 버립니다. 재빨리 내 삶에 이 모든 것이 만연해져버립니다. 불신앙이 완전히 주인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접촉되어야 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거룩한 피입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와 저주, 근심과 걱정, 멸망과 고통을 씻는 물일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마치 상처난 육신을 수술하는 도구로 지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흘러 내리도록 기도해야, 그 말씀이 접촉되는 생각과 일들, 육신이 거룩하게 됩니다. 치유됩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도전에 너무 약합니다. 사탄을 이기지만, 사탄과의 싸움에서 출혈이 항상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실패합니다. 영적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기가 영적싸움 현장에 이르면, 하나님의 생기는 우리로하여금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출혈이 생기더라도 이기는 용기가 생깁니다.

나의 기도에 거룩한 기쁨, 성령이 닿도록 기도합시다. 성령이 기름처럼 그 현장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이 내용을 연약한 자들에게 전달해 줍시다.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다 거룩해 질 것입니다.

- 신앙고백
- 찬송: 9장
거룩 거룩 거룩
- 기도
- 성경본문: 출 30:22-33
- 주기도문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20-A 교회를 섬기는 분들 CHURCH STAFFS

| | | |
|---------------------------|---|--|
| 원로 목사 EMERITUS PASTOR | 김철연 KIM, CHURL YEON | 213-503-7627 |
| 담임 목사 SENIOR PASTOR | 박세광 PARK, SE KWANG | 215-290-6774 SPARK@SPCNJ.COM |
| 교육 전도사 STUDENT PASTOR | 정소은 JEONG, SO EUN | 201-233-5057 SJEONG@SPCNJ.COM |
| | 문에디 MOON, EDWARD | 973-943-3304 EMOON@SPCNJ.COM |
| | 이정학 LEE, JASON | 201-359-4251 JLEE@SPCNJ.COM |
| 장 로 ELDERS | 유병근 YOO, BYUNG KUN 이원형 RHEE, WON HYUNG | 문상원 MOON, SANG WON 여홍구 YEO, HONG GU |
| 협동 장로 ASSOCIATE ELDERS | 김근필 KIM, KEUN PIL | |
| 지휘자 CONDUCTOR | 이충훈 LEE, CHOONG | |
| 반주자 ACCOMPANISTS | 고수정 KOH, SOO JEONG | 신지영 SHIN, JIYOUNG |

20-B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 FELLOWSHIP

| | | | | | |
|-------------------------------------|-------------------|----------------------|----------------------------------|---------------------|-------------------------|
| 주일 1부 SUNDAY 1ST SERVICE | 8:00 AM | 본당 SANCTUARY | 태영아부 NURSERY DEPARTMENT | 주일 SUN. 11:30 AM | 태영아실 NURSERY ROOM |
| 주일 2부 SUNDAY 2ND SERVICE | 11:30 AM | 본당 SANCTUARY | 유초등부 ELEMENTARY DEPARTMENT | 주일 SUN. 11:30 AM | 유초등부실 CHILDREN ROOM |
| OPEN WORSHIP | 10:00 AM | 본당 SANCTUARY | 중고등부 YOUTH GROUP | 주일 SUN. 11:30 AM | 렘넌트실 REMNANT HALL |
| 수요일예배 WEDNESDAY SERVICE | 8:00 PM | 본당 SANCTUARY | 대학청년부 COLLEGE & YOUNG ADULT | 주일 SUN. 1:40 PM | 렘넌트실 REMNANT HALL |
| 금요기도회 FRIDAY PRAYER MEETING | 8:00 PM | 본당 SANCTUARY | 산업선교 BUSINESS MISSION | 토 SAT. 8:00 AM | iPrime (Fort lee) |
| 새벽기도회 (월-금) EARLY MORNING PRAYER | 6:00 AM | 본당 SANCTUARY | 한국학교 KOREAN SCHOOL | 토 SAT. 1:30 PM | 소예배실 SMALL SANCTUARY |
| 237 다락방 237 DARAKBANG | 수 WED. 7:00 PM | 렘넌트실 REMNANT HALL | 렘넌트연합예배 REMNANT JOINT SERVICE | 세째주일 THIRD SUN | 렘넌트실 REMNANT HALL |

WWW.SPCNJ.COM

242 E. MIDLAND AVE. PARAMUS, NJ 07652
TEL. 201.944.0554
njsummitpc@gmail.com



SUMMIT CHURCH OF PARAMUS